

창업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의 창업의지 영향요인

송민선¹, 양남영^{2*}

¹건양대학교 간호대학, ²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ntrepreneurial Program

Min Sun Song¹, Nam Young Yang^{2*}

¹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지를 파악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2022년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인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지를 자가 설문하도록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대학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과 창업의지 ($r=.58, p<.001$), 진취성과 창업의지 ($r=.55, p<.001$),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 ($r=.66, p<.001$) 및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r=.47, p<.001$)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계열(인문사회) ($\beta=.28, p=.001$), 전공계열(자연) ($\beta=.22, p=.011$), 전공계열(공학) ($\beta=.26, p=.003$),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 ($\beta=.43, p<.001$)이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55.4%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창업보다 취업이 우선인 국내 대학생에게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계열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창업과 관련된 위험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entrepreneurial program.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February 7 to 28, 2022. A total of 100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entrepreneurial programs were self-questioned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Using the SPSS program, a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for analysis. Innova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58, p<.001$), proa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55, p<.001$), risk-sensi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66, p<.001$),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r=.47, p<.001$)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were the major of participan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beta=.28, p=.001$), (natural sciences) ($\beta=.22, p=.011$), and (engineering) ($\beta=.26, p=.003$), as well as entrepreneurship(risk-sensitiveness) ($\beta=.43, p<.001$). The explanatory power was 55.4%.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risk sensitiveness and a differentiated approach for each major in order to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entrepreneurial program necessary f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Entrepreneurial Intention,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Risk-Sensitiveness,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Nam Young Yang(Kongju National Univ.)

email: nyyang@kongju.ac.kr

Received March 21, 2022

Revised April 13, 2022

Accepted June 3, 2022

Published June 30,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높게 인식함에 따라 창업 강좌 개설, 창업동아리 운영, 창업관련 대체학점 인정제 및 창업 휴학제 등 다양한 창업교육 강좌와 활동으로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청년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창업교육 실시 및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1,2]. 창업교육 및 지원은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지식 습득 및 관련 역량을 증가시키고, 창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예비창업가의 기업가정신을 촉진시켜 창업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4]. 따라서 대학에서 제공되는 창업교육 및 지원은 대학생의 창업에 대한 의지를 향상시키고, 관련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의지는 특정 행동의 실행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변인이다[5]. 창업의지는 창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6]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7,8].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은 미래의 창업가로서 대학생 스스로가 창업의지를 통해 창업할 가능성을 갖고, 창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가정신은 창업 준비단계부터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6] 많은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을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분하고 있다[6,9].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신념을 갖추고 창업과 관련된 기회를 포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창업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으로부터 확장되어 창업에 대한 창업자의 자신감을 포괄한다[6]. 높은 창업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확실성, 위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에 처한 문제를 지각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10]. 즉, 창업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같은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회생과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기회들로 인식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0,11]. 따라서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대학생 자신의 역량에 대한 믿음

은 더욱 도전적인 사고와 위험추구 행동을 하게 되어, 실제 창업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4].

국내 많은 대학은 재학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창업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기업가정신의 고취 및 창업 지식을 전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학과도 개설하는 등[12] 창업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프로그램의 양적인 향상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실증적인 효과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향후 창업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질적인 향상도 기대해야 할 시기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를 확인하여, 향후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창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대상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C도 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만 18세 이상인 자 중 대학에서 제공한 창업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

기로 동의한 자이다. 표본 수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위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예측변수 5개로 하였을 때, 92명이 산출되어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101명에게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자 1명을 제외한 최종 10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 분석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전공계열, 참여한 창업프로그램이었다.

2.3.2 창업의지

창업의지는 Kreuger와 Brazeal [13], Veciana 등 [14]의 연구에 기반하여 Won [15]이 내용을 구성한 창업의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Won [15]의 연구에서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Kim [16]이 사용한 기업가정신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17문항으로 혁신성 5문항, 진취성 6문항, 위험감수성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 [16]의 연구에서는 .73-.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4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자기효능감은 Kim과 Kim [17]이 사용한 창업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과 Kim [17]의 연구에서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4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C도에 소재한 2곳의 대학교 학

생을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연구대상자가 직접 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고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설문지 작성이 끝난 대상자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번호: KNU_IRB_2022-011)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안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은 부호화하여 관리하며,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3년간 보관 후 보관기간이 끝난 후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관련 서류는 폐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창업의지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는 총 100명으로 성별은 남자 32명(32.0%), 여자 68명(68.0%)이었고, 연령은 평균 23.37±1.68세이었다. 학년은 2학년 15명(15.0%), 3학년 43명(43.0%), 4학년 42명(42.0%)이었고, 전공계열은 교육 28명(28.0%), 인문사회 26명(26.0%), 자연 18명(18.0%), 공학 28명(28.0%)이었다. 창업프로

그럼 중 동아리 활동은 100명(100%) 모두 참여하였고, 특강은 40명(40.0%), 경진대회는 13명(13.0%), 캠프는 8명(8.0%)이 참여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n(%)
Gender	Male	32(32.0)
	Female	68(68.0)
Age (year)		23.37±1.68
	21~23	64(64.0)
	24~30	36(36.0)
Grade	Sophomore	15(15.0)
	Junior	43(43.0)
	Senior	42(42.0)
Major	Education	28(28.0)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6(26.0)
	Natural sciences	18(18.0)
	Engineering	28(28.0)
Participating in start-up club	Yes	100(100.0)
	No	0(0.0)
Participating in start-up lecture	Yes	40(40.0)
	No	60(60.0)
Participating in start-up contest	Yes	13(13.0)
	No	87(87.0)
Participating in start-up camp	Yes	8(8.0)
	No	92(92.0)

3.2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기업가정신은 평균평점 3.60±0.54점이었고, 하위영역 중 혁신성은 평균평점 3.73±0.56점, 진취성 3.66±0.57점, 위험감수성 3.44±0.57점 순이었다. 창업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85±0.64점이었고, 대상자의 창업의지는 평균평점 3.03±0.81점이었다.

Table 2.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N=100)

Variables	Sub item	Mean±SD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3.73±0.56
	Proactiveness	3.66±0.57
	Risk-sensitiveness	3.44±0.57
	Total	3.60±0.54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3.85±0.64
Entrepreneurial intention		3.03±0.81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창업의지의 차이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창업의지는 일반적 특성 중 전공계열(F=7.40, $p<.001$)과 경진대회 참여여부($t=2.26$, $p=.026$)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상, 전공계열은 인문사회, 자연, 공학계열 학생은 교육 계열 학생보다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높았고, 경진대회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3. Differenc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Entrepreneurial intention	
		M±SD	t/F (p) Scheffé
Gender	Male	3.14±0.91	0.91 (.367)
	Female	2.98±0.77	
Age (year)	21-23	2.95±0.77	-1.29 (.201)
	24-30	3.17±0.88	
Grade	Sophomore	2.93±1.12	0.58 (.561)
	Junior	2.97±0.71	
	Senior	3.13±0.80	
Major	Education ^a	2.47±0.52	7.40 (<.001) a<b,c,d
	Humanities & social sciences ^b	3.24±0.81	
	Natural sciences ^c	3.22±0.83	
	Engineering ^d	3.28±0.82	
Participating in start-up club	Yes	3.03±0.81	-
	No	-	
Participating in start-up lecture	Yes	3.09±0.76	0.57 (.570)
	No	2.96±0.85	
Participating in start-up contest	Yes	3.50±1.07	2.26 (.026)
	No	2.96±0.75	
Participating in start-up camp	Yes	3.13±0.91	0.38 (.707)
	No	3.02±0.81	

3.4 대상자의 기업가정신,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창업의지는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r=.58$, $p<.001$), 진취성($r=.55$, $p<.001$), 위험감수성($r=.66$, $p<.001$) 및 창업자기효능감($r=.47$, $p<.00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았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N=100)

Variables	Entrepreneurship			4	5
	1	2	3		
r (p)					
Entrepreneurship	1. Innovativeness	1			
	2. Proactiveness	.68 (.001)	1		
	3. Risk-sensitiveness	.60 (.001)	.68 (.001)	1	
	4.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59 (.001)	.60 (.001)	.48 (.001)	1
	5. Entrepreneurial Intention	.58 (.001)	.55 (.001)	.66 (.001)	.47 (.001)

3.5 대상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자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변수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계열과 경진대회 참여 여부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Table 5. Variable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N=10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0.65	0.41		1.57	.119
Major_HS (ref_education)	0.51	0.15	.28	3.32	.001
Major_NS (ref_education)	0.46	0.18	.22	2.60	.011
Major_EN (ref_education)	0.46	0.15	.26	3.07	.003
Participating in start-up contest (ref_no)	0.31	0.18	.13	1.72	.090
Innovativeness	0.27	0.15	.19	1.90	.062
Proactiveness	0.01	0.16	.01	0.06	.954
Risk-sensitiveness	0.50	0.12	.43	4.27	.001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0.14	0.12	.11	1.18	.240

F=16.35, p<.001, R² =.590, Adj. R² =.554

SE=Standard Error; Adj=Adjusted; HS=Humanities & social sciences; NS=Natural sciences; EN=Engineering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 한계(tolerance)는 0.35-0.80으로 모두 0.1 이상이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25-2.89로 10보다 크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

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이 1.72로 기준 값인 2.0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80미만으로 서로 독립적임을 확인하였다.

단계적으로 변수들을 투입하여 산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6.35, p<.001), 최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계열 중 인문사회(β =.51, p=.001), 자연(β =.46, p=.003), 공학(β =.51, p=.011),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β =.50, p<.001)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4개 변수는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55.4% 설명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에서 지원한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자기효능감 및 창업의지를 확인하였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은 3.60점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과 Park [4]의 3.63점, Won [15]의 3.62점과 유사하게 조사되어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중 혁신성 3.73점, 진취성 3.66점, 위험감수성 3.44점으로 위험감수성이 가장 낮게 조사되어 Song과 Yang [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운영되는 창업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의사결정, 새로운 도전정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험감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의 창업자기효능감은 3.85점이었다. 선행연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창업멘토링이 창업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Cho 등[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창업자기효능감은 일시적인 창업교육만으로 향상되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창업 상황에 맞는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프로그램의 방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창업의지는 3.03점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전공계열과 경진대회 참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여 전공계열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Bian 등[20]의 연구와 창업교육 참여 여부에 따라 창업의지에 차이가

있다는 Kim과 Park [4]과 Kim [21]의 연구와 맥락이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인문사회, 자연, 공학계열 학생은 교육 계열 학생보다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높아 여전히 대학생에게 창업은 취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계열을 포함하는 대학에서는 진로관점에서 창업교육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20]. 따라서 창업에 대한 동기를 전공계열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경진대회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보다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창업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시하면 이를 평가하여 사업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을 하고 더 나아가 학교에 따라서는 해당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까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후속지원을 진행한다 [22]. 따라서 대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창업프로그램은 창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국한하지 말고, 경진대회와 같은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창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창업의지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기업가정신, 즉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게 조사되어 Kim과 Yang [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나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은 어려운 과업에 보다 많은 학습적 노력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단계인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Lee [6]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창업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뿐만 아니라 개인적 특성인 창업자기효능감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그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충분히 분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전공계열(인문사회, 자연, 공학)과 기업가정신(위험감수성)으로 확인되어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 중 위험감수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대학생의 경우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과감한 의사결정, 새로운 도전 정신,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감수성[7]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나 창업현장 실무 인턴십 교육 등의 실제적 체험이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교육이 고도화된 체계성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대학생들에게 진로선택의 대안으로 창업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8] 전공계열별 차별화된 창업활성화

전략을 고민해 보아야 할 시기이다.

따라서 향후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뒷받침과 함께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마주하는 도전성을 심어주는 등 경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확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전공계열과 위험감수성을 확인하였다. 창업보다 취업이 우선인 국내 대학생에게 창업의 활성을 위해서는 전공계열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창업과 관련된 위험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대상은 일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향후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전공계열별 창업동기를 확인, 분석하는 연구 및 대학 창업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D. Kim, C. G.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young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ship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3, No.2, pp.53-76, Mar. 2018.
DOI: <https://doi.org/10.24878/tkes.2018.13.2.53>
- [2] J. A. Lee, Y. S. Ahn, "Analyzing education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ship of university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4, No.2, pp.73-82, Apr. 2019.
DOI: <https://doi.org/10.16972/apibve.14.2.201904.73>
- [3] J. Vanevenhoven, E. Liguori,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roducing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ject",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51, No.3, pp.315-328, Jun. 2013.
DOI: <https://doi.org/10.1111/jsbm.12026>
- [4] J. H. Kim, S. K. Park, "The effect of short-term start-up education program on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3, No.1, pp. 591-605, Feb.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3.1.42>

- [5] I. Ajze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pp.179-211, Dec. 1991.
- [6] J. H. Lee, "Structural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5, pp.695-706, May. 2021.
DOI: <https://doi.org/10.5392/JKCA.2021.21.05.695>
- [7] K. M. Hmieleski, A. C. Corbett,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4, No.1, pp.45-63, Dec. 2005.
DOI: <https://doi.org/10.1111/j.1540-627X.2006.00153.x>
- [8] Y. J. Yoon, J. W.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self-leadership, innovative behavior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41, No.1, pp.23-42, Feb. 2022.
DOI: <https://doi.org/10.37210/JVER.2022.41.1.23>
- [9] H. S. Choi, Y. Y. K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experience of first-degree relative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7, No.1, pp.91-113, Jan. 2022.
DOI: <https://doi.org/10.24878/tkes.2022.17.1.91>
- [10] J. E. McGee, M. Peterson, S. L. Mueller, J. M. Sequeira,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33, No.4, pp.965-988, Jul. 2009.
DOI: <https://doi.org/10.1111/j.1540-6520.2009.00304.x>
- [11] B. H. Kim, C. H.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ectivenes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problem-solv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6, No.4, pp.185-201, Jul. 2021.
DOI: <https://doi.org/10.24878/tkes.2021.16.4.185>
- [12] Y. Zhou, H. J. Yoon, "A survey research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Vol.21, No.3, pp.161-201, Sep. 2018.
DOI: <https://doi.org/10.24991/KJHRD.2018.09.21.3.161>
- [13] N. F. Kreuger, D. V.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8, No.3, pp.91-104, Apr. 1994.
DOI: <https://doi.org/10.1177/104225879401800307>
- [14] J. Veciana, M. Aponte, D. Urbano,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Vol.1, No.2, pp.165-182, Jun. 2005.
DOI: <https://doi.org/10.1007/s11365-005-1127-5>
- [15] S. P. Won, *The effects of percep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behavior*, Ph.D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pp.61-62, 2015.
- [16] S. W. Kim,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failure safety net recogni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gnition of financial statu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pp.68-69, 2021.
- [17] M. S. Kim, Y. G. Kim,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of Korea*, Vol.15, No.5, pp.61-84, Oct. 2012.
- [18] M. S. Song, N. Y. Yang,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recogni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4, pp.265-278, Aug.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4.19>
- [19] H. J. Cho, D. S. Choi, C. S. Sung,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15, No.2, pp.81-96, Apr. 2020.
- [20] J. Y. Bian, G. S. Yoon, J. H.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e and differences in college affiliated gro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16, No.4, pp.112-140, Jul. 2021.
DOI: <https://doi.org/10.24878/tkes.2021.16.4.112>
- [21] N. H. Kim, "The role of tourism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competency,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nd intention to get a job",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Vol.23, No.1, pp.181-197, Feb. 2021.
DOI: <https://doi.org/10.31667/jhts.2021.2.86.181>
- [22] K. Y. Yi, "The effects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on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Vol.21, No.1, pp.375-385, Feb. 2021.
- [23] J. G. Kim, D. W. Yang,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4, pp.477-487, Apr.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4.477>

송 민 선(Min Sun Song)

[종신회원]



- 2002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2013년 2월 : 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만성질환간호, 노인간호

양 남 영(Nam Young Yang)

[정회원]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3년 3월 ~ 2017년 8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국립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관리, 만성질환간호, 간호교육